

북한 해군 현대화에 대한 견해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해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관적이었다. 수상 함대의 수는 많지만 대부분 소형 초계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해안 작전에 그 활용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함정 대부분은 대한민국 해군과 미 해군에 대응할 수 없는 구식 무기 체계와 센서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 함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편이다. 북한은 71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구소련 시대 모델이나 연안 해역에서 멀리 나갈 수 없는 소형 잠수함들이다. 잠수함 전력에서 주목할 만한 예외는 핵탄두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으로 설계된 한두 척의 잠수함이다. 그러나 이 잠수함들도 소음이 심하고 추적하기 쉽다. 수년 동안 북한은 잠수함 현대화를 모색해 왔지만, 발전 수준은 소폭에 그쳤다.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북한 잠수함은 군사 자원 중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한국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미국 해군 및 국방부 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KIMS Periscope



U.S. Naval War College
교 수
Terence Roehrig

김정은은 2023년 8월 29일 해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미국과 다른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대결 움직임으로 인해 한반도 앞바다는 핵전쟁의 위험이 있는 가장 불안정한 해역이자 세계 최대의 군비 밀집 지역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한국,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지도자들을 "깡패 우두머리들"이라고 부르며 북한군에게 "해군의 현대화와 전투 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준비 태세와 "상시 전투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2024년 2월, 김 위원장은 남포 조선소를 방문해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신형 군함 건조를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위원장의 발언을 의역하여 김위원장이 해군 강화가 "국가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전쟁 준비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마침내 2024년 9월, 김정은은 확정된 새 해군 기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는 곧 기존 시설에 정박할 수 없는 대형 수상전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해군기지를 현대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현대적이고 다기능적인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해군을 지역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강력한 해군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수년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온 북한이 해군력 향상을 우선순위 목록에 추가한 것일까? 답은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기저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지,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북한이 현대화 계획에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해군 현대화

북한 해군 현대화는 크게 핵 억제력과 연결된 해군 자산과 재래식 해군 능력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우려할 만한 사안이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다르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군의 주요 현대화 사업은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이었다. 2016년,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해 개조된 전망탑에 1~2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을 공개했다. 2023년 9월, 김정은은 "전술 핵 공격잠수함"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진화된 신포급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다. 이 잠수함은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10개의 수직관, SLBM용 대형관 4개, 순항미사일용 소형관 6개를 갖추고 있으며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이라는 명칭이 붙은 SLBM은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서 신형 잠수함을 "해군력의 수중 공격 수단"이자 "선진 해양 강국 건설의 위대한 대업의 첫 번째 실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만큼 함정 건조 사업 확대 추진에서 물러설 여지가 없다"며 "수중 및 수상 전력의 현대화를 강화하고 향후 해군의 핵무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군옥 영웅함은 여전히 소음이 심하고 항속 거리가 제한되어 심해 작전 수행 능력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함정이다. 이 함정이 얼마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북한은 2014년부터 여러 발사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SLBM인 북극성-1(KN-11)을 비행 시험했으며, 2019년에는 잠수함 발사대에서 또다른 기종인 북극성-3(KN-26)을 시험했다. 이 미사일의 전반적인 상태와 능력에 대해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다.

김군옥 영웅함이 진수되기 몇 주 전, 김정은은 동해 해군 기지를 방문하여 신형 수상함인 압록급 초계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시험을 참관했다. "전략"이라는 명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시험은 신형 호위함의 공개라는 의미도 있다. 북한의 가장 진보된 수상 전투함인 압록급 초계함은 레이더 단면을 축소하고 북한군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과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은 서방 기술에 비해 여전히 구식이며 퇴역한 북한 및 중국 함정에서 장비를 모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압록급 초계함은 "구식의 센서와 무기만으로 무장한 수상 전투함으로서 그다지 주목할 만한 함정이 아니다. (중략) 그러나 이 함정은 핵 추진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사거리 내에서 타격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체인저일 수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2023년 3월, 또 다른 핵무기 시스템인 해일 수중드론이 등장했다. '쓰나미'라는 뜻의 해일은 러시아 포세이돈 어뢰를 모방한 대형 '메가 어뢰'로, 핵무기를 탑재하고 자율적으로 작동한다. 조선중앙통신은 해일이 "모든 해안과 항구에 배치하거나 수상함에 탑재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일은 북러관계가 개선된 후 2024년 1월에 마지막으로 두 차례 더 시험 발사되었는데, 러시아가 이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기술 지원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도움 정도와 이 무기의 정확한 능력 수준 모두 불확실하다.

김정은은 2023년 해군의 날 연설에서 "최근 적들의 공격적인 시도와 군사 행동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해군력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북한군의 다른 요소도 성장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북한군 수상 함대에는 370여 척의 해안 경비정, 265척의 상륙 강습정, 20척의 기뢰 부설함이 있다. 대형 수상 전투함은 2~4척의 호위함뿐이며, 수 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지만 이보다 큰 함정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함대는 유도 미사일 및 어뢰정과 등 소형 고속 함정과 함께 연안 작전에 국한된 소형 초계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군은 연료와 예비 부품 부족으로 인해 북한 내 다른 군가 마찬가지로 훈련과 준비태세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재래식 수상 해군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 수준은 미미했다. 이러한 노력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도 전투에서 북한이 패배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북한은 자신들의 구식 무기와 표적 시스템이 현대화된 한국 함정에 비해 얼마나 뒤쳐졌는지에 놀랐을 것이다. 북한 해군의 일부 초계함에는 더 빠른 사격 속도와 최신 레이더 및 센서를 포함한 향상된 표적 시스템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무기 체계가 장착되어 있다. 북한 해군은 또한 쌍동선, 초고속단정(VSV), 공기부양정 등 새로운 고속 공격정 수 척을 확보했다. 앞서 언급한 압록급 초계함과 두만급 초계함도 재래식 해군의 개선을 의미하며, 이는 계획중인 호위함과 함께 한국의 잠수함 전력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잠전(ASW) 능력을 함대에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미처와 올리만스는 "북한 해군의 능력에 대한 공개 정보가 부족하여 구형 함정만 운용하며 현재 보유중인 재고를 유지할 자금도 부족하다는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판을 얻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 해군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능력이 없다는 반복되는 가정도 잘못된 것이다"고 경고한다.

북한의 의도는?

국가가 해군을 유지하는 동기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침략을 억제하고, 해양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 등이 있다. 김정은은 일반적으로 해군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북한 핵 능력의 수중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분명하다. 핵탄두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김군옥 영웅함과 핵무장 수중드론인 해일은 북한에 더 다양한 핵 발사 플랫폼을 제공한다. 압록급 호위함의 전술 핵무기는 한미 연합 방위 계획을 복잡하게 하고, 북한의 핵 억제력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광범위한 해상 핵 억제력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

재래식 함대의 현대화는 북한 연안 해역을 더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해안 기반 미사일 및 로켓 포대를 통한 '지역 거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거리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함정이 더 많아지면 특히 한국 해군 능력 향상과 한미일 해양 협력 강화에 대응하여 더 넓은 국토 방어 구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또한 향후 러시아 및 중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통한 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이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북한의 위신과 작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시 한국 해역은 한미 해군이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해군의 능력만으로는 이러한 해상 통제를 전복할 수 없지만, 재래식 또는 핵무장으로 무장한 수상함, 수중드론, 잠수함의 능력은 한국으로의 전력 흐름을 방해하고 재보급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 등의 항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더 나은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 분석가들은 북한의 해군 개발 과정에서 북한군이 전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방한계선을 따라 섬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륙함과 상륙정의 수가 우려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기존 해군 능력과 많은 현대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노력 및 새로운 기지 개발은 서해보다는 동해에 더 많은 전력을 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전 과제

이러한 계획은 북한 해군의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김정은의 최근 성명은 해군력 증강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 첫째, 모든 국가는 제한된 자원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북한은 특히 이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국방 예산에 지출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재정적 제약이 있다. 북한은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능력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보여 왔지만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며, 특히 이러한 능력이 핵무기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 해군력 증강에 대한 김정은의 목표에 부합하는 자금이 확보될지는 불투명하다.

둘째, 북한이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필요한 것을 건조하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고 노후 선박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조선 능력과 첨단 기술이 제한되어 있다. 제재 이행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첨단 무기 체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면 이러한 품목 중 일부에 대한 공급원이 확보될 수 있지만, 모스크바가 변화를 가져올 필수 기술을 기꺼이 포기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결론

북한의 해군 현대화의 방향과 강도는 주목할 만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 억제력에 기여할 수 있는 탄도 잠수함 및 기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국 해군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점을 상쇄하기 위해 비대칭 능력을 추구해 왔다. 북한이 충분한 수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안전한 2차 타격 능력에 필요한 작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 의문이 남아 있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재래식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는 더욱 불확실하다. 김정은이 북한 해군 함정의 증강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기존 함정의 느리고 점진적인 개선과 수 척의 새로운 함정 건조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김정은이 북한 국방 전략에서 해군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하다.

.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What to make of North Korean naval modernization?

Terence Roehrig

Professor

U.S. Naval War College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author's alone and do not represent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Nav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or the US government.

Introduction

Over the past two decades, assessments of Korean People's Army Navy (KPAN) have been largely pessimistic. The surface fleet, though large in numbers, is composed of small patrol vessels and largely confined to coastal operations. Most of these ships have weapons systems and sensors that are outdated and no match for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US Navies. The appraisal of North Korea's submarine fleet is only slightly more positive. With 71 boats, North Korea has one of the largest submarine forces in the world, but these too are old Soviet-era models or midget submarines that are unable to venture far from coastal waters. The noteworthy exception in the submarine force are the one or two boats intended as launch platforms for nuclear-tipped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However, these submarines are also loud and easy to track. Over the years, North Korea has sought to modernize its fleet, but these upgrades have been modest. While the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and th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s), have been important efforts, the KPAN has been last in line among the services for defense resources. But there are signs this may be changing with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During a speech to mark Navy Day on 29 August 2023, Kim Jong-un declared: "Owing to the reckless confrontational moves of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the waters off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reduced to the world's biggest hardware concentration spot, the most unstable waters with the danger of a nuclear war" (KCNA 2023a). Referencing the Camp David Summit of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im called the participants a "gang of bosses" and challenged the KPAN to maintain readiness and "a constant combat alertness"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while “radically improving the modernity and fighting capacity of the Navy.” In February 2024, Kim visited the Nampo shipyard and called for the construction of new warships because they were crucial to the country’s defense. Paraphrasing Kim’s remarks, KCNA reported Kim asserting that strengthening the Navy “presents itself as the most important issue reliably defending the maritim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stepping up war preparation” (Kim 2024). Finally, in September 2024, Kim Jong Un visited the construction site of a new naval base confirmed: “we are soon to possess large surface warships and submarines which cannot be anchored at the existing facilities”; modernizing the KPAN is an “urgent task” and the need “to build a modern and multifunctional naval base is a process of key importance in developing the naval force into a powerful service in conformity with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KCNA 2024).

What to make of these statements? After years of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s North Korea adding the improvement of naval capabilities to its list of priorities? Though the answers are uncertain, there are several key questions to consider. What goals may underlie this strategic shift? What are the likely lines of effort for a naval modernization program? What is the likelihood of the DPRK succeeding in its modernization plans?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North Korean Naval Modernization

KPN modernization can be roughly broken down into two categories: naval assets linked to its nuclear deterrent and conventional naval capabilities. Both are concerning but for different reasons.

The chief modernization effort for the KPAN has been the development of a ballistic missile submarine capable of launching nuclear warheads. In 2016, North Korea revealed the 8.24 Yongung, a Sinpo-class submarine with one or two vertical launch tubes in a modified conning tower for launching SLBMs. In September 2023, Kim Jong-un revealed another, more advanced Sinpo-class submarine, the Hero Kim Kun Ok calling it a “tactical nuclear attack submarine.” The boat is a modified Romeo-class submarine with ten vertical tubes, four large tubes for SLBMs and six smaller tubes for cruise missiles, all presumably capable of carrying a nuclear warhead (Mizokami 2021). With the “tactical” designator, the SLBMs are likely short-range missiles. During the ceremony that revealed the Hero Kim Kun Ok, Kim Jong Un proclaimed the new submarine an “underwater offensive means of naval force” and “the first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ntity ... in the great cause of building an advanced maritime power” (KCNA 2023b). Thus, “there is no room to step back in the drive for the expansion on the naval vessel-building industry as it is the top priority task to be fulfilled without fail” and stressed the need to “enhance the modernity of underwater and surface forces and push forward with nuclear weaponization of the Navy in the future” (KCNA 2023b). Though the Hero Kim Kun Ok is an improvement, it will still be a noisy vessel and relatively easy track with limited range that will restrain its ability to conduct deep-water operations. It is not clear how close the boat is to being operational.

In tandem with these efforts, North Korea has been working on the Pukguksong-1 (KN-11), an SLBM that has been flight tested on five occasions beginning in 2014 from several platforms and in 2019, tested another variant, the Pukguksong-3 (KN-26) from a submerged launch platform. The overall status and capability of these missiles is uncertain.

A few weeks prior to the launch of the Hero Kim Kun Ok, Kim Jong-un visited an East Sea naval base to observe a test of what was called a “strategic cruise missile” from a new surface vessel, an Amnok-class corvette. The “strategic” label likely means it is intended to be nuclear-capable, and the test was also significant for the revelation of the new corvette. As North Korea’s most advanced surface combatant, the Amnok corvette has a reduced radar cross section along with the KPAN’s most advanced weapons systems and sensors. Yet according to one source, these features are still obsolete compared to Western technology and appear to be cobbled together from decommissioned North Korean and Chinese ships (Misopoulos 2023). Accordingly, this assessment concluded: “as a surface combatant, the Amnok-class corvette isn’t really noteworthy. It is just a corvette with outdated and poor sensor and weapons fit. ... [the ship] is a game changer however in that it brings the unexpected capability to strike South Korea and Japan at stand off range with nuclear typed [sic] land attack cruise missiles” (Misopoulos 2023).

Another nuclear-capable weapon system appeared in March 2023, the Haeil underwater drone. Korean for “tsunami”, the Haeil replicates the Russian Poseidon torpedo that is a large, “mega torpedo”, nuclear-armed and autonomous. KCNA stated: the Haeil “can be deployed at any coast and port or towed by a surface ship for operation” (Ng 2023). The Haeil was tested on two more occasions, the last in January 2024 after North Korea-Russia relations took off leading to the possibility that Russia may have provided some degree of technical assistance to the program. However, the extent of Russian help along with the exact level of capability of this weapon is again uncertain.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Kim Jong-un has also indicated his intention to grow other elements of the KPAN noting in his 2023 Navy Day address that “rapidly developing the naval force has become a very urgent issue in view of the enemies’ recent aggressive attempts and character of military actions.” (KCNA 2023a). The current KPAN surface fleet includes over 370 coast patrol ships, 265 amphibious assault craft and 20 mine warfare boats. The only large surface combatants are 2-4 frigates with plans to build a few more but no class of ships larger than these vessels. Most of the fleet consists of small, high-speed ships like guided-missile and torpedo boats along with smaller patrol vessels with all limited to coastal operations. The KPAN faces the same challenges as other branch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due to a shortage of fuel and spare parts that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training and readiness.

North Korea has also undertaken measures to improve its conventional surface navy though they have been more modest. These efforts were triggered by North Korea’s defeat at the First Battle of Yeonpyeong Island in June 1999 that may have been a wakeup call as the KPAN was likely surprised with how poorly their antiquated weapons and targeting systems fared against more modern ROK ships (Roehrig 2023, 136-38). Some of the KPAN’s patrol vessels have received upgraded weapons systems that allow faster rates of fire and improved targeting systems including more modern radar and sensors. The KPAN has also acquired several new fast attack boats that include catamarans, Very Slender Vessels (VSV), and hovercraft. The Amnok corvette noted earlier along with the Tuman-class corvette also represent improvement in its conventional navy and along with the planned frigates, provide the fleet with greater anti-submarine warfare (ASW) capability to address South Korea’s growing submarine force. Thus, Mitzer and Oliemans (146) caution that “the lack of public information on the KPAN’s capabilities have given it the reputation of solely operating outdated ships, as well as lacking the funding to maintain what inventory it has. Not only is this stereotype unsound, the often-echoed presumption that the KPAN is incapable of introducing new technologies is also incorrect.”

North Korea’s Intentions?

States can have several motives for maintaining navies including to win wars, deter aggression, protect their maritime commercial interests and to project power. Kim Jong-un has argued the need for a stronger navy in general terms but there are likely more specific reasons for his intent to move in this direction. First, it is clear that developing an underwater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ponent to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is the top priority. The Hero Kim submarine's ability to launch nuclear-tipped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along with the Haeil nuclear-armed underwater drone gives Pyongyang a larger variety of nuclear launch platforms.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Amnok corvette add further to a broader maritime component of nuclear deterrence that complicates ROK-US defense planning and increases the survivability of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t.

Modernization of the conventional portion of the fleet is likely viewed as important to better defend North Korea's coastal waters. North Korea already has an "area denial" capability from shore-based missile and rocket batteries but more ships armed with longer range anti-ship missiles help to create a wider homeland defense zone, particularly in response to growing South Korean naval capability and increased Japan-ROK-US maritime cooperation. These capabilities may also allow future collaboration, possibly exercises, with Russian and Chinese navies that would do little for Moscow and Beijing but would boost DPRK prestige and operational skill.

In addition, should war break out, the Korean theater will likely be dominated by the ROK/US Navies. While greater KPAN capability would be unable to challenge this sea control, more capable surface ships, underwater drones, and submarines, whether conventional or nuclear-armed would have a better chance of disrupting the flow of forces into Korea and disabling ports like Busan and others for resupply efforts.

Finally, defense analysts have also been watching North Korea's naval acquisitions for indications that Pyongyang is seeking to increase the KPAN's ability to project power. The number of amphibious assault vessels and landing craft that could undertake operations against the islands along the Northern Limit Line have been a concern. Yet North Korea's existing naval capability along with many of the modernization efforts and new bases appear destined for the East Sea for more power projection here rather than in the West Sea.

Challenges

While these initiatives provide some improvement to KPAN capabilities and Kim Jong Un's recent statements point to a renewed determination to build up his Navy, significant obstacles remain. First, all states face the challenge of limited resources and North Korea is particularly hard-pressed in this regard. Despite spending a large portion of state resources on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defense budget, Pyongyang still has spending constraints on what it can accomplish given its many other priorities. North Korea has adopted a strategy of focusing on asymmetric capabilities because it cannot match ROK defense acquisitions. Though North Korea has often demonstrated that it can come up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despite sanctions, it must ultimately make choices. Expanding and modernizing the KPAN to the degree that it will make much difference is a costly proposition and its not clear if funding will match Kim’s rhetoric for growing naval capability, especially if these capabilities are not tied to nuclear weapons.

Second, even if North chose to devote the needed resources, there are major questions about its ability to build and acquire what is needed. The DPRK has limited shipbuilding capacity and the advanced technology needed for new vessels as well as to modernize older ships. Though sanctions enforcement is waning, it will be difficult to acquire the needed technology for advanced weapons systems. North Korea’s growing ties with Russia may provide a source for some of these items, but it’s not clear that Moscow will be willing to part with the necessary technology that would make a difference.

Conclusion

The direction and intensity of North Korea’s naval modernization bears watching but it is unclear how far and how quickly this effort will go. The priority is likely to remain the ballistic submarines and other platforms that can contribute to Pyongyang’s nuclear deterrent. North Korea has long pursued asymmetric capabilities to offset the difficulty it has in keeping pace with ROK naval development. While many questions remain regarding North Korea’s ability to build sufficient numbers of submarines and develop the necessary operational skill for a secure second strike capability, Pyongyang has surprised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this work in earnest. The scope and scale of conventional modernization is even more uncertain. Though Kim has talked about growing the KPAN, these efforts are likely to remain more modest with slow and incremental improvements to existing vessels and construction of a few new ships. Time will tell how far North Korea is able to progress toward these goals but it is clear that Kim Jong-un has decided to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naval power in DPRK defense strategy.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Terence Roehrig is Professor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at the U.S. Naval War College. He was a Research Fellow at the Kennedy School at Harvard University and a past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tudies.

국내외 추천 자료

- [Joseph Dempsey, “North Korean shipyard’s undercover mystery”, *IISS*, October 30, 2024.](#)
- [A. B. Abrams, “North Korea’s Nuclear Submarine Program Could Seriously Complicate a Future US War Effort,” *The Diplomat*, October 15, 2024.](#)
- [Martyn Williams, Jack Liu, Peter Makowsky and Iliana Ragnone, “Tapchon Naval Base: Planned Naval Base Makes the Most of Natural Defenses”, *38 North*, September 12, 2024.](#)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구독자분들께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보기](#)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